

화진포 소나무 숲 삼림욕장 조성

고성군 6억원 투입 ... 거진읍 화포리 일대 50ha

전국 제일의 경관을 자랑하는 고성 화진포 일원의 천연 소나무 숲을 삼림욕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돼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성군 6억원의 예산을 들여 거진읍 화포리 산3번지 일원 50ha의 면적에 산책로 개설, 장애우 이용 편의시설(데크

로드), 의자 및 테크 등 휴식편의시설, 이정표, 안내표지판 등을 갖춘 삼림욕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산림욕장 조성승인 신청을 거쳐 5월경 조성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호수 주변 소나무를 활용해 산책, 휴식, 건강증진 등 이용객 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

다. 군 관계자는 “화진포 소나무 숲 삼림욕장이 조성되면 연간 27만명이 찾는 화진포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함은 물론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최광호 기자

토성면 정월대보름 행사



2012년 정월대보름맞이 토성면민 화합 노래자랑 대회가 오는 5일 오후 1시30분 천진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토성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마련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초청가수 공연, 시상식, 경품추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기대된다.

백옥식 시민기자

“도시 생활 접고 고성 정착하니 행복”

토성면 운봉리 멧돼지 농장 운영 김영희씨...원하는 사람에게 분양도

도시에서의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고성지역에 정착해 농사를 지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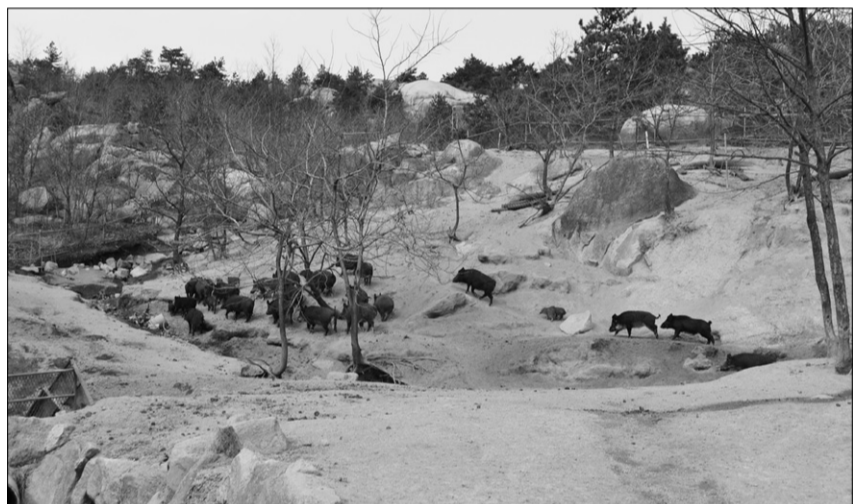
토성면 소재 운봉산 산기슭에서 멧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김영희씨(54세)는 도시에서의 직장 생활을 접고 운봉산으로 들어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그는 처음 운봉산 기슭으로 들어와 멧돼지 3마리와 염소 10마리로 축산업을 시작했다.

이후 염소는 모두 판매하고 멧돼지 5마리를 더 구입해 자연분만 등으로 현재 60여 마리의 멧돼지를 기르고 있다.

이곳에서 자라는 멧돼지는 한약재를 사료로 사용하며 자연 방목으로 길러 맛이 좋으며, 원하는 사람들에게 분양도 하고 있다.

김씨는 이와함께 토성면 백촌리 논 2천평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영근(700평)을 시험재배 하고 있으며, 나머지 1,300평은 다른 작물과 약초를 키우고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접고 고성으로 이주한 김영희씨가 토성면 운봉리 산기슭에서 자연방목으로 키우는 멧돼지들.

있다. 김영희씨는 “항상 휴과 더불어 농장기슭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생활하니 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행복감을 느낀다”며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보다 수입이 더 좋은 편이다”고 말했다. (멧돼지 분양 문의 : 010-3075-0404)

백옥식 시민기자

거진읍번영회 축구연합회 격려



거진읍번영회(회장 윤종우)는 지난 17일 거진읍 소재 식당에서 고성에 동계전지훈련 온팀을 위해 심판진을 지원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애쓴 고성군 축구연합회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광연 기자

토성의용소방대 아야진 위문

속초소방서 소속 고성 토성의용소방대원(대장 이종열) 5명은 지난 24일 아야진리 통합 경로당 2곳과 아야진 디지털 공부방을 방문해 위문품으로 쌀 10kg 10포대를 전달하고 위급상황시 119에 신고하도록 당부하는 등 화재예방교육도 실시했다.

최광호 기자



창간 1주년
GOSEONG WEEKLY NEWS

우리나라 유일의 분단 군 고성,
통일 고성을 꿈꾸며...
더욱 분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과 하나되는 기업
금강산콘도
본부장 전희서

고성 21
공동대표 이동균